

아랍어 사전의 기원에 대한 연구 - 키탕 알 아인(Kitāb al-‘ayn)을 중심으로

은 경 *

◁ 차 ▷

- I. 서론
- II. 아랍어 사전학의 태동
- III. 알 칼릴 이븐 아흐마드(al-khalil Ibn ‘Aḥmad)
- IV. 『키탕 알 아인(Kitāb al-‘ayn)』
- V. 결론

<Abstract>

A Study on the Origin of Arabic
Lexicography
- focused on Kitāb al- ayn』

Yun, Eun- Kyeong
HUFS

This research aims to study the origin of Arabic lexicography focused on 『Kitāb al- ayn』. In the compilation of dictionaries, and other lexicographical works, the Arab scholars were very remarkable. The great interest in codification to make Arabic language a capable and uniform instrument of communication arose first in relation to Islam. And for the purpose of preserving the textual integrity and correct pronunciation of the Arabic language in the Qur'an, the first linguistic studies were started and they were systematized by al-khalīl Ibn 'Ahmad who was considered as one of the greatest Arab linguists.

『Kitāb al- 'ayn』 is the first Arabic dictionary and it is characterized by the permutational or anagrammatical arrangement. al-khalīl chose to invent his own alphabetical order, and he arranged the letters according to their points of pronunciation, beginning with the throat letters or gutturals, and

ending with the labials or lip- letters. Yet, though we may feel tempted to criticise al-khalīl severely for his confused arrangement, we must pay tribute to him for producing the first Arabic dictionary. The labour involved was considerable, the result magnificent in its way. It achieved its objects in drawing attention to the richness of the language, and accustomed scholars to the idea of a complete dictionary.

Key Words : Arabic Lexicography, Dictionary, Kitāb al-'ayn, al-khalīl Ibn 'Ahmad, Makhraj

I.

아랍어는 아라비아 반도와 북부 아프리카에 걸쳐 있는 아랍 연맹에 소속된 22개국의 공식어이다. 또한 약 3억에 달하는 아랍인들의 모국어이며, 이슬람교의 종교어이기도 하다. 전 세계 모든 무슬림들이, 본인의 모어와 국적에 상관없이, 예배 시에 사용하는 언어가 아랍어라는 사실은 이슬람교와 아랍어의 밀접한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아랍인들과 무슬림들에게 이슬람교는 종교이기 이전에 그들의 삶의 방식이고 철학이다. 따라서 이슬람교의 교리를 담고 있는 꾸란과 꾸란을 기록한 언어인 아랍어에 대한 아랍인들의 경외심은 비(非)아랍인이나 비(非)무슬림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것이다.

아랍어는 AD 6세기 이전부터 아라비아 반도에서 구어체 언어 형태로 사용되기 시작하여, 아랍, 이슬람 제국의 발전과 함께 빠른 속도로 발전 해 갔다. 아랍어가 일개 부족의 방언에서 세계적인 언어로 부상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은 아랍 언어학자들이 문법규칙들을 규범화하고 언어의 성문화(Codification)를 이룩했기 때문일 것이며, 이것은 또한 비 아랍인들이 이슬람에 귀의하면서 유발된 언어학적 문제들까지도 포함된 것이었다. 아랍인과 비 아랍인의 내부혼합으로 인한 결과는 아랍어의 부패와 결손²⁾으로서 아랍어로 이루어진 꾸란 원문의 고결성과 정확하고 순수한 아랍어 발음의 고수가 절대적이라고 믿던 아랍인들에게는 경종을 울리는 문제점이었다. 따라서 꾸란의 이중적인 해석이나, 모호함을 피하는 것이 종교적 의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에게는 아랍어 문법서와 사전 편찬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 아랍어의 외국식 악센트, 단어의 잘못된 발음 등으로서 아랍어발음 규칙상 샷다(Shaddah)나 장모음화 등의 규칙을 어기는 발음을 말한다.

사전류의 책이나 기타 어휘목록의 편찬활동에 있어 아랍 언어학자들의 업적은 괄목할만한 것으로 르네상스까지 중국인의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독보적이었다. 그들이 남긴 많은 사전들과 어휘목록들은 일반적인 주제와 특수한 분야의 관련 어휘들을 담고 있으며, 이런 종류의 저작물들이 서부유럽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때에, 이미 아랍인들은 이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 준다(Haywood 1965, 3-4).

사전학은 어휘론의 한 응용분야로서 주로 사전을 만드는 원칙과 실제적인 것, 즉 사전의 목적과 예상되는 이용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종류를 결정하고 기술내용을 정하며, 또 어휘 항목을 선정하고, 비교, 배열하며 정의 및 규범적, 기술적인 용법 등을 연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사전학의 역사는 한 언어의 역사와도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말하는 사람들 간에 이해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언어생활은 인간의 사고 및 행동의 도구로서, 사고의 발달과 더불어 발전해 왔다. 그러나 인간은 지능과 암기력 등의 한계로 인해 자신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모든 정보들을 기억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단어들을 접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그 단어들의 의미나 쓰임새 등에 대한 참고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으로서 ‘사전’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오늘날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사전’이라는 것은 매우 익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전편찬을 위한 준비 작업이 매우 힘든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사전의 편찬에 있어 어휘의 배열을 알파벳순에 의거하는 방식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언어의 사전 편찬사를 돌이켜볼 때, 과거에는 그렇게 배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현재의 사전편찬체계가 정착되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가 되풀이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아랍어 사전의 출현과 발달단계에서는 이러한 시행착오의 과정이 명확히 나타난다.

아랍어 사전의 초기단계는 제한된 범위의 어휘들을 불분명한 체계로 배열한 형태였다. 그 뒤 전반적인 어휘들을 조음점(Makhrāj)에 의거 후두음부터 시작하는 알파벳순에 따라 순환식으로 배열한 사전이 등장하였고, 이어서 마지막 자음, 즉 각 운에 따라 단어를 배열한 사전이 나타났으며, 현재의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단어의 첫째자음에 의거한 편찬방식도 소수 학자들에 의해 시도되었다. 이러한 시행착오 속에서도 14세기 말엽까지 아랍인들은 약 6만 여개의 표제어를 수록한 알 까무스 알 무히트(al-Qāmūs al-Muḥīṭ)라는 사전과 8만 여개의 표제어를 담은 『리산 알 아랍(Lisān al-‘arab)』이라는 사전을 소유하였는데, 아랍세계에 인쇄술이 보급되기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천 개의 사본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Haywood 1965, 5).

본 소고에서는 이슬람의 근간인 꾸란의 정확한 해석과 보존뿐 아니라 아랍어의 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아랍어 사전의 기원에 대해 최초의 아랍어 사전으로 간주되는 『키타브 알 아인(Kitāb al-‘ayn)』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논문의 순서는 1장 서론을 포함하여 2장에서는 아랍어 사전학이 발전하게 된 배경, 3장에서는 『키타브 알 아인』의 저자로 알려진 알 칼릴 이븐 아흐마드(al-khalīl Ibn ‘Aḥmad, 718-791)에 대해 살펴보고 4장에서는 『키타브 알 아인』의 편찬 방식 및 특징, 아랍어 사전학 분야에서의 영향 및 의의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II. 아랍어 사전학의 태동

어떤 대규모 사회에서라도 하나의 혼합어가 등장하게 되면 대개 정치적 우월권을 가진 한 종족에 의해 그들의 언어를 기타 퇴화된 방언이나 언어를 사용하는 다른 종족들에게 전과하는 수단은 주로 ‘종교’이다. 아랍어는 아라비아 반도에서 몇몇 아랍 부족의 공통 언어로서 역할을 하였지만 더 넓은 이슬람 제국의 공용어가 되었을 때 그 상황은 달랐다. 처음부터 이러한 상황은 아랍 정복자들 뿐 아니라 이슬람으로 귀의 한 후 아랍어를 배우고자 했던 비 아랍계 무슬림들에게 있어 중요한 언어학적 문제로 부각되었다. 이들이 아랍어에 능통하기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으며 특히 성령의 메시지인 꾸란을 낭송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 복합적인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점은 아랍어로 이루어진 꾸란 원문의 고결성과 정확하고 순수한 아랍어 발음을 고수하고, 꾸란 내용의 이중적인 해석이나 모호함을 피하는 것이 종교적 의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에게는 경종을 울리는 심각한 문제였다. 따라서 순수한 아랍어의 보존, 유지를 위한 문헌학적 활동들이 무슬림학자들에 의해 시도 되었다.

당시 언어학자들은 합리적인 명분으로 꾸란과 조화될 수 있는 정제되고 순수한 아랍어의 성문화를 위해 몇 가지 특정 모델을 채택, 순수한 언어의 기준으로 충실히 고수하였다. 이때 채택된 모델들은 주로 이슬람이전시대와 초기이슬람시대의 시가 및 격언, 꾸란, 예언자와 그 후계자들의 교리들 그리고 사막 아랍인들 특히 메카와 그 주변지역 부족들의 언어였다. 이 중에서 꾸란은 신이 계시한 메시지를 가장 순수한 표준 아랍어로 담고 있다는 믿음이 공고하던 당시에 중요한 참고 서적이었다. 또한 사막에서 유목생활을 하던 베투인³⁾등의 언어

역시 가장 순수하게 보존된 언어라는 관념이 이어져 왔는데, 이들의 언어는 공식어로 사용되었음과 동시에 언어학자들이나 칼리프들 간의 언어학적 논쟁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순수주의에 대한 강령은 아랍어 방언들 간의 광범위한 비교 연구를 통해 유사성과 차이점의 도출을 이끌어 낸 후 문법 규칙의 정리 및 사전편찬 등의 아랍어 성문화 작업을 발달시킨 요인이었던 것이다.

아랍어의 경우 언어학 분야에서 주요 비중을 차지하는 문법이나 사전학이 태동하게 된 원인은 바로 이슬람의 근간인 꾸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순수하고 깨끗한 아랍어의 전승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대개 언어학의 발달과정에서는 문법이 사전 편찬 작업에 선행하기 마련이지만, 아랍어에서는 문법과 사전학이 확실한 구분 없이 함께 발달해 온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이 두 학문분야에서의 주요 저서는 8세기 후반에 나타났는데, 사전학에서는 알 칼릴 이븐 아흐마드(al-khalīl Ibn 'Aḥmad, 718-791)의 『알 칼릴 알 아인』, 문법 분야에서는 그의 제자 시바와이히(Sibawaihi, 765-796)의 『알 키تاب(al-Kitāb)』이다. 이 두 저서의 등장으로 인해 아랍어 문법과 사전학은 명확히 분리되었으며, 이전에는 주로 구전으로 행해지던 문헌학적 활동들의 새로운 시기가 전개 되었다.

아랍에서 사전학은 주로 꾸란이나 ‘하디스(al-Ḥadīth)’, 초기 이슬람시대의 시가에서 나타나는 의미가 모호한 단어들에 대한 학문이었다.

아랍인들이 사전의 형태로 언어학적 자료들을 수집하여 한 곳에 기록한 시기는 압바스 시대(서기 750년경)에 이르러서인

3)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여겨지던 베드윈 부족들로는 꾸라이쉬(Qurayshī), 까이스(Qays), 타뫼(Tamīm), 아사드(Asad), 후다일(Hudhayl), 키나나(Kinānah), 타이(Tay)부족들이었다. A. G. Chejne 1965, 41.

데, 이것은 아랍인들과 함께 인류 문명을 이룩한 다른 민족, 즉 중국인, 앗시리아인, 그리스인, 로마인들에 비해 다소 늦은 시기이다(J.A. Haywood 1965, 25).⁴⁾ 아랍세계에서 압바스 시대 이전에 사전편찬의 필요성이 외면되었던 이유에 대해 현대 아랍 언어학자 라밀 야으꾸(Rāmil Ya'qūb)은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Rāmil Ya'qūb 1995, 24).

첫째, 이슬람이전시대 아랍인들 간에는 문맹률이 높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이 극소수였다는 점이다.

둘째, 부족 간의 정복활동과 이동이 빈번하였던 사회적 특성으로 인해 사전의 편찬은 등한시 되었다.

셋째, 아랍인들은 '시가'들이 자신들의 언어의 보고라고 여겼기 때문에 꾸란 내에서 모르는 단어가 있을 경우 '시가'들을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아랍인들이 압바스 시대 이전에 '사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꾸란을 독경하는 과정에서 해석이 난해한 단어들에 직면했을 때 그들의 문학적인 유산이며 언어의 보고인 시가들을 참고로 했다면, '사전학'의 연구는 꾸란의 주석과 더불어 대두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당시 아랍 언어 학자들이 꾸란 내의 의미가 모호한 단어를 '가립(Gharīb)'이라고 명명하며 이를 해석하기 위한 구전교리(Riwayah)들을 전수하였다는 점에서도 나타난다. 또한 초기 사전편찬단계에서 꾸란 내의 희귀하고 모호한 단어들에 대한 책이 많이 저술되었다는 점, 아랍에서 기본적인 학문으로 여겨지는 주석, 법률학, 수사학, 문법, 사전학 등이 꾸란의 독경과 이해를 목적으로 생겨났다는 사실로써 증명될 수 있다(Ḥusain Naṣār 1998, 26-28).

4) Haywood 의하면 앗시리아인의 경우 기원전 6세기 경에 사전을 편찬하였고, 중국인 'hu-shin'은 기원전 150년 경 "shou-wan"이라는 사전을 썼다. 그리스인들 역시 아랍인 보다 앞서 사전편찬 활동을 벌였는데 "Yulius polux", "Helladius flaccus"등의 사전을 편찬하였다.

고대 아랍 언어학자들은 언어학적 자료의 수집에 있어 시간적인 기준과 공간적인 기준을 병행하였는데, 시간적으로는 자힐리야 시대와 헤지라 력 2세기 중반까지의 문학 언어의 기록으로 국한하였으며, 공간적으로는 아라비아 반도 내의 여러 정착민부족을 제외한 유목민들의 언어를 기준으로 하였다. 또한 이들이 언어학적 자료를 수집하여 기록하는 데는 3가지 단계가 있었는데 다음과 같다(A.G. Chejne 1969, 43).

1단계 : 언어학자가 사막을 돌아다니면서 어느 주제에 관련된 단어들을 들으면, 이것들을 관용적인 것(al-Sama‘ah)으로 받아들여 일정한 체계나 방식이 없이 들리는 대로 기록하는 것이다.

2단계 : 한 주제에 관련된 단어들을 한 곳에다 기록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술된 책들은 대개 그 주제 별로 명명된다. 이러한 어휘록의 예는 아부 자이드(‘Abū Zayd, 737-830)가 비(雨)에 관련된 단어를 모아 기록한 『키타브 알 마따르(Kitab al-Maṭar)』, 알 아스마이(al-‘asma‘i, 740-831)가 낙타의 습성, 울음소리 등에 관련된 단어들을 모아 기록한 『키타브 알 이블(Kitab al-‘ibl)』 등이다.

3단계 : 특정단어의 의미를 알고자하는 사람이 참고할 수 있도록 일정한 편찬방식에 의거 ‘사전’을 편찬하는 단계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최초로 아랍어 일반 사전을 저술한 학자는 『키타브 알 아인』이라는 사전을 쓴 알 칼릴 이븐 아흐마드(al-khalīl Ibn ‘Aḥmad)이다.

일부 학자들은 이 3가지 단계에 관해 약간의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786년 타계한 알 칼릴이 아부 자이드나 알 아스마이

보다 앞서서 사전을 썼다는 주장이다(‘Abd al-ḥamīd al-shalqāni, 28). 만일 이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한다면 언어의 수집과 기록은 두 가지 방향, 즉 ‘주제별 어휘 록’과 ‘포괄적인 사전’의 저술이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 두 단계의 선행여부에 관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 칼릴 이븐 아흐마드가 글자 그대로의 의미에 있어 아랍어 사전을 쓴 최초의 인물이라는 점은 분명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한 것은 제4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알 칼릴 이븐 아흐마드가 8세기 후반 편찬한 것으로 보이는 『키타브 알 아인』은 조음점에 의거한 알파벳 순서와 순환식 단어 배열방식을 이용한 것으로서 이후 사전편찬방식의 근간이 되었음과 동시에 이를 필두로 모방과 수정의 과정을 거친 많은 사전들의 연구 편찬이 시작되었다.

Ⅲ. 알 칼릴 이븐 아흐마드(al-khalīl Ibn ‘Aḥmad)

『키타브 알 아인』의 저자로 알려진 알 칼릴 이븐 아흐마드의 원래 이름은 아부 압둘 라흐만 알 칼릴 이븐 아흐마드 이븐 아므르 이븐 타맘 알 파라히디(‘Abū ‘Abd al-Raḥmān al-khalīl Ibn ‘Aḥmad Ibn ‘Amr Ibn Tamām al-Farāhidī, 718-791)⁵⁾이다. 서기 718년 경 아라비아 남부 지역 오만에서 태어난 그는 어릴 때에 바스라로 이주하여 사전학, 문법, 샤리아, 수학, 음악, 시가 등의 여러 학문을 공부하였고, 아부 알 아스워드 알 두왈리(‘Abū al-‘Aswad al-Duwallī, ?-688) 이후 가장 뛰어난 아랍문법학자라는 명성을 얻은 바스라

5) 논문에서는 『키타브 알 아인』의 저자 이름을 알 칼릴 이븐 아흐마드 또는 알 칼릴로 요약하여 표기하겠다.

(al-Baṣrah) 학파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바스라 학파는 쿠파(al-Kūfah) 학파와 더불어 아랍어 문법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던 학파로서 여러 유명 학자들을 배출하였다. 그 중에는 아부 알 아스워드 알 두왈리, 알 칼릴 이븐 아흐마드, 시바와이히, 아부 우바이다('Abu 'Ubayda, ? - 825), 이븐 두라이드(Ibn Durayd, ? - 933)등이 있다. 아부 아스워드 알 두왈리는 흔히 아랍어 문법의 창시자로 간주된다. 그는 문법의 기초를 가르쳐 준 칼리프 알리의 강력한 권고로 연구를 시작했으며 꾸란의 언어인 아랍어를 오염시키는 요인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진 인물이었다(Shawqī Dayf 1989, 35). 알 두왈리는 또한 정확한 아랍어 읽기를 위해 모음부호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모음 부호의 초안은 그의 제자 알 칼릴 이븐 아흐마드에 의해 구체화 되었으며 아랍어 문법 체계 역시 알 칼릴에 의해 기초가 다져졌다(J. A. Haywood 1965, 15).

알 칼릴 이븐 아흐마드는 당시 그와 대등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능숙한 아랍어와 달변으로 아랍 언어학의 거장으로서의 명성을 얻었다. 알 칼릴 이븐 아흐마드가 문법에 두드러진 공헌을 했다는 것은 그의 제자들의 작품과 그의 사전 『알 키탐 알 아인』에 의해서 입증된다. 그의 제자 시바와이히는 스승인 알 칼릴 이븐 아흐마드의 가르침과 자문을 통하여 『알 키탐』이라는 저서를 썼으며, 이 책은 두꺼운 두 권의 분량으로 현존하고 있다. 시바와이히는 문법의 대가였으며 그의 저서는 문법의 꾸란으로 간주되었다. 『알 키탐』은 단어들을 명사, 동사, 불변사로 분류하고 있으며 시와 격언 그리고 산문에서 취해진 많은 예문들을 통해 격어미를 지배하는 법칙들을 수록하고 있다(Shawqī Dayf 1989, 37).

알 칼릴 이븐 아흐마드는 사전학, 문법, 샤리아, 수학, 음악

그리고 시 등 여러 분야에서 깊은 학식을 가진 학자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음성학, 어휘론, 의미론 적 연구들의 질서를 잡고 형태를 완성하였다. 그는 아랍 운율과 그 법칙들을 총 정리 하였고 최초의 아랍어 사전인 ‘키타브 알 아인’을 편찬했다. 이 사전에는 단어들이 일반적인 알파벳순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고 음성학적 원칙에 따라 배열되어 있는데, 이후 인도 문법학자들이 이 원칙에 따라 후음, 구개음 등의 소리들을 음성학적으로 배열했다(J.A. Haywood 1965, 19).

알 칼릴 이븐 아흐마드가 저술한 것으로 알려진 책들은 최초의 아랍어 사전 『키타브 알 아인』, 아랍어 운율에 대한 『키타브 알 아루드(Kitāb al-‘arūd』, 인용문들을 모아 놓은 『키타브 알 샤와히드(Kitāb al-Shawāhid』, 구별 점에 대한 『키타브 알 누카트(Kitāb al-Nuqāt』, 음악에 대한 『키타브 알 나감(Kitāb al-Naḡham』, 문법 지배 소에 관련된 『키타브 알 아와밀(Kitāb al-‘awāmil』, 문장 구조에 대한 『키타브 알 주말(Kitāb al-Jumal』, 음악적 리듬에 대한 『키타브 알 이까(Kitāb al-‘Iqā’』 등이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저서 들 중 『키타브 알 아인』 이외에 현존하는 것은 없다.

IV. 키타브 알 아인(Kitāb al- ‘ayn)

1. 편찬 방식

앞서 언급하였듯이 알 칼릴 이븐 아흐마드 시대의 언어학자들은 소책자나 주제별 어휘 록의 형식으로 한 주제에 관련된 단어들을 모아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어휘 록에 수록된 단어들은 일정한 방식에 의거하지 않고 되는대로 배열되었으므로 사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로

인해 정리 방식에 있어 일관된 체계의 정립과 사전을 찾아보는데 용이한 방식으로 편찬된 사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 이에 부응하여 나타난 최초의 사전이 『키탃 알 아인』이다. 이 사전은 독특한 편찬 방식과 단어 배열 방식으로 이후 아랍어 사전학 발달에 많은 영향을 남겼다.

아랍 언어학자 후세인 나샤르(Husayn Naṣār)는 자신의 저서 『알 무으잠 알 아라비(al-Muʿjam al-ʿarabī)』에서 『키탃 알 아인』의 서문을 일부 발췌하고 있는데, 이 사전의 개요와 편찬방식에 관한 이해를 위해서 그 내용을 번역해 보면 다음과 같다(Husayn Naṣār 1998, 174-178).

“...본인은 아랍어의 모든 자음들에 대해 각 권별로 관련어휘들과 표현들을 빠짐없이 정확히 기록함으로써 아랍인들이 그들의 시가, 격언, 교리들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한다. 여기에서 자음의 순서는 일반적인 알파벳순서의 첫 자음인 'alif로 시작하지 않고 인두음인 'ayn으로부터 시작하여 양순음인 mīm의 차례로 기록하였다. 모든 자음들을 직접 발음하면서 숙고한 끝에 가장 순수한 인두음이 'ayn이라고 결정하여, 이것으로 책의 첫머리를 잡은 것이며 그 다음은 좀 더 높은 조음점의 자음들로 이어나가 마지막의 양순음 mīm과 반모음들의 순서로 쓰게 된 것이다...”

이 서문에서 나타나듯이 알 칼릴은 아랍어의 보편적인 알파벳순을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독특한 체계를 고안해 내었다. 그는 조음점에 따라 알파벳을 배열하였는데 그 순서는 목구멍에서 가장 가까운 소리 즉 후두음인 'ayn, ḥā', ḥā', khā', ghayn으로 시작하여 목젓 소리인 qāf, kāf, 입의 입구(shajr)에서 조음되는 jīm, shīn, ḍāḍ, 혀의 끝부분('asal)에서 조음되는 ṣād, sīn, zay, tā', rā', ṭā', 치경음(lathawiyyah)인 zā', thā',

dhāl, 혀의 중심부 소리(dhalayyah)인 lām, nūn, 입술소리인 fā', bā', mīm, 끝으로 호기(呼氣)의 막힘이 없는 소리(Hawā' iyyah)인 wāw, 'alif, yā' 등의 순이다.

여기서 갖게 되는 의문은 알 칼릴이 왜 가장 가까운 인두음인 hamzah와 hā'로 알파벳을 시작하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인데, 다시 말하면 그가 조음점에 따라 목구멍소리에서부터 입술소리까지로 배열한 이론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알 칼릴은 함자는 발음 상 변형이 쉽고 생략되기 쉽기 때문에 첫 번째 순서로 놓을 수가 없었고, 알리프의 경우 단어의 어두에 울수가 없고 동사에서는 파생형동사의 첨가형으로서만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hā'는 불명확한 음가를 가진 무성음이기 때문에 기피하였다고 말하면서 그 다음 부류인 'ayn과 ḥā' 중에서 'ayn이 보다 순수한 음가를 가졌다고 여겨 맨 처음의 자음으로 정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Rāmil Ya' qūb 1995, 41-44).

이외에도 알 칼릴이 『키탃 알 아인』에서 사용한 사전 편찬 방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 ① 모든 단어를 'ayn, ḥā', hā', khā', ghain, qāf, kāf, jīm, shīn, ḍāḍ, ṣād, sīn, zay, ṭā', dāl, tā', zā', dhāl, thā', rā', lām, nūn, fā', bā', mīm, wāw, yā', 'alif, hamzah의 순으로 정돈했다.
- ② 단어의 배열에서 첨가된 자음(al-ḥurūf al-zā'idah)은 제외하고 원래 어근인 자음에 의거했다.
- ③ 자신이 고안한 순환 식 체계를 이용, 한 단어와 그 단어의 순환 식 단어를 한 곳에서 다르게 있는데, 예를 들면 /daba'a/ - /bada'a/ - /'abada/ - /ba'ada/ -/'adaba/ 등의 어형들이 '아인'에 관한 '키탃'에서 한 곳에 기록되어 있다.
- ④ 사전을 자음의 숫자대로 분류하여, 각 자음에 관한 내용의 한 묶음을 '키탃'이라고 명명하였다. 따라서 그의 사전은 『

『키타프 알 아인』에서부터 『키타프 알 하(Kitāb al- ḥā')』 등으로 불리어졌는데 이중 가장 첫째 자음의 이름을 따서 사전의 이름을 『키타프 알 아인』 또는 『알 아인』 이라고 부른 것이다.

- ⑤ 하나의 키타프 내에서 단어들은 어근의 자음숫자에 따라, 이중 약동사, 3자근 약동사, 3자근 강동사, 2자근, 4자근, 5자근 등으로 분류, 설명하였다.
- ⑥ 단어의 의미설명에서는 주로 꾸란, 하디스, 격언, 시가 등에서 용례들을 인용하였다.
- ⑦ 각 장(Bab)내에서 표제어 하단에는 해당 어근의 순환 식 단어배열로 일단의 어형들이 모아져 있으며, 사용되는 어휘만을 선별하여 기록했다.
- ⑧ 사전편찬과정에서 참고한 학자들의 이름을 많이 기입하였는데, 일부사람들은 그와 동시대인이며 일부는 제자들이다.⁶⁾

『키타프 알 아인』의 편찬방식의 특징 중 알 칼릴이 어휘를 기록하기 위하여 독창적으로 고안해 낸 단어의 순환 식 배열 방식은 약간의 부연설명을 필요로 한다.

아랍어 단어는 그 어원학 상 2자근, 3자근, 4자근 및 5자근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는 여기에서 2자근 단어를 가정하여 만일 알리프가 첫째 자음이라면 두 번째 자음은 아랍어자음 27개중 어느 것이라도 올 수 있으므로, 1에다 27을 곱한 수가 어떤 자음으로 시작되는 2자근단어의 숫자임을 인지하였다. 이 합계에다 2를 곱하면, 각 자음들의 치환된 2자근 단어의 숫자가 추정되는데, 여기서 그는 / 'a'a/, /ba'ba'/등 똑같은 자음 2

6) 사전에서 알 칼릴이 언급한 후대언어학자들은 알 아스마이(al- asmaī, 740-837), 아부 우바이다(Abū 'Ubaydah, 728-841), 시바와이히 등인데, 이 점이 『키타프 알 아인』의 원 저자가 알 칼릴이 아니라는 회의론의 한 가지 이유이다. 이 문제는 제4장 3절에서 다루기로 한다.

개로 이루어지는 단어는 제외하였다. 또한 3자근은 6종류의 순환식단어가 가능하게 되며 4자근은 24종류, 5자근은 120종류의 순환식단어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중에서 사용되지 않는 어휘는 생략하고 어휘만을 기록한 것이다('Aḥmad Tāhir Ḥusayn 1987, 169). 따라서 만일 /waghada/ 나 /al-sāqī/라는 단어의 의미를 '키탃 알 아인'에서 찾아보려고 한다면, 우선 이 단어들의 어근이 /waghada/와 /saqaya/라는 것을 분석하여 『키탃 알 가인(Kitāb al-ghayn) 과 『키탃 알 까프(kitāb al-qāf)』를 보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알 칼릴의 조음점에 의거한 알파벳순에서 ghayn은 waw와 dal 보다 앞에 있고, qāf 역시 sīn과 yā'보다 앞에 있기 때문이다.

알 칼릴은 아랍어에서 존재하는 모든 어근들을 『키탃 알 아인』에 기록하려고 했지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모든 단어를 기록한 것은 아니다. 순수하고 정확한 아랍어⁷⁾가 아니라고 여겨지는 것들은 생략하였다. 또한 그가 조음점에 의거 배열한 자음들을 각각 키탃으로 분류하였다면 모두 29개⁸⁾의 키탃이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26개의 키탃이 있다. 4개의 약자음인 waw, yā', 'alif, hamzah를 마지막 26번째 키탃에 모아 놓았기 때문이다(Rāmīl Ya'qūb 1995, 37). 이외에도 『키탃 알 아인』은 적지 않은 실수와 오기들을 포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아랍어 사전학의 선구자로서 다른 참고 서적이 없이 최초로 편찬된 작품으로서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점들이라고 사료된다.

이 사전이 택하고 있는 조음점에 따른 알파벳순과 순환식 단어 배열법은 독자들의 사용에는 매우 어려운 방식이었는데,

7) -칼릴은 문학에서 나타나는 언어들만 순수한 것으로 여겼지만, 그 정확한 기준이 무엇이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J.A Haywood, 1965., p.39.

8) 아랍어의 자음 숫자에 대하여는 오늘날 까지도 통일된 의견이 나오지 않았으나, 여기서 29개라는 숫자는 hamazah와 alif를 각각 하나씩의 자음으로 간주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키탃 알 아인』의 보편적인 사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음점에 따른 알파벳순과 순환 식 단어배열방식은 사전의 다각적인 활용도 면에서 적당하지 않았다. 어근 파생형의 나열에 있어 규칙적인 체계가 부족할 뿐 아니라, 때로는 사용되지 않는 단어들을 기록하고, 필요한 단어를 빠뜨리는 등, 파생, 형태상의 잘못된 기록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이 사전을 이용하는 사람은 각고의 노력 끝에 필요한 어근의 표제어를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원하는 단어를 찾기 위해 그 표제어의 도입부부터 전체적인 내용을 해독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2. 영향 및 의의

최초의 아랍어 사전인 『키탃 알 아인』은, 비록 혼란스럽고 일관되지 못한 정돈방식으로 인해 많은 비평들에 마주치긴 하였지만, 이후 아랍어 사전 편찬 활동에서 많은 영향력을 남겼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이 사전으로 인해 많은 후대학자들이 자음배열의 특정체계를 사용한, 사전들을 편찬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다. 많은 사전편찬학자들이 조음점에 의거한 배열방식(al-Tartib al-Makhrāji)을 고수 하였으며, 어근에 따라 단어를 배열하는 것은 공통적인 아랍어 사전 편찬방식으로 정착되었다.⁹⁾

『키탃 알 아인』의 등장이 대단히 획기적인 사건이었던 만큼 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 저술활동 역시 활발하였는데 우선 그 결점들을 보충한 책으로는 알 시두시(al-Sidūsī, ?-810)의 『al-'istidrāk 'alā al-'ayn』과 알 카즈란지 알 바쉬티

9) 현대에 이르러 나타난 일부 사전은 어근이 아닌 발음에 의거하여 단어배열이 이루어진 것도 있다. 그예로는 알 마르자오(al-marja)'와 '알 라이드(al-ra'id)'등이 있다.

(al-khazranji al-Bashīti, ?-959)의 『al-Takmilah』 등이 있다. 비평서로는 아부 바크르 알 주바이디('Abū Bakr al-Zubaydī, 928-989)의 『Istidrāk al-ghalaṭ al-wāqī'i fī al-'ayn』 과 알 카팁 알 이스카피(al-kātib al-'iskāfi, ?-1029)의 『Ghalaṭ al-'ayn』 등이 있다. 또한 『키타프 알 아인』의 주요 내용들 만을 요약한 책들도 많이 저술되었는데 알 주바이디가 쓴 『Mukhtaṣar al-'ayn』은 전반적인 편찬방식과 어휘 설명의 방법론적인 면에서 가장 훌륭한 『키타프 알 아인』의 요해서 중 하나로 여겨진다(Ramīl Ya'qūb 1995, 51-52).

『키타프 알 아인』의 등장은 이후 아랍 학자들이 다양한 사전을 편찬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 중 대표적인 사전들을 편찬 방식에 따라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알 칼릴 방식'이라고 불리는 조음점에 의거한 알파벳순과 순환 식 단어배열방식으로서 대표적 사전은 아부 만수르 무함마드 알 아즈하리 알 하라위('Abū Maṣṣūr Muḥammad al-'azharī al-Harāwī, 895-981)의 『타흐디브 알 루가(Tahdhīb al-Lughah)』, 이스마일 븐 알 까심 븐 하룬 알 깔리(Ismā'īl Bn al-Qāsim bn Hārūn al-Qālī, 901-967)의 『알 바리'(al-bārī')』 등이 있다.

두 번째, 일반적인 알파벳 순서에 따른 순환 식 단어 배열 방식으로서 대표적 사전은 아부 바크르 무함마드 이븐 알 하산 이븐 두라이드('Abū Bakr Muḥammad Ibn al-ḥasan Ibn Durayd, 837-934)의 『알 잠하라(al-Jamharah)』, 아흐마드 이븐 파리스 이븐 자카리야('Aḥmad Ibn Fāris Ibn Zakariyā, 941-1004)의 『알 마까이스(al-Maqāyīs)』 등이 있다.

세 번째, 각운에 따른 단어 배열 방식으로서 대표적 사전으로는 아부 나스르 이스마일 알 파라비 알 자으하리('Abū Naṣr 'Ismā'īl al-Farābī al-Jawharī, ?-1003)의 『알 사하흐(al-ṣaḥāḥ)』, 무함마드 이븐 무카람 이븐 만주르(Muḥammad

Ibn Mukarram Ibn Manẓūr, 1232-1311)의 리산 알 아랍 (Lisān al-‘arab)』, 무함마드 본 야콥 아부 따히르 알 피루자 바디(Muḥammad Bn Ya‘qūb ‘Abū Tāhir al-Fīrūzabādī, 1329-1415)의 『알 까무스 알 무히뜨(al-Qāmūs al-Muḥīṭ)』 등이 있다.

네 번째, 단어의 첫째 자음을 기준으로 한 알파벳 순 배열 방식으로서 대표적 사전으로는 부뜨루스 알 부스타니(Butrūs Al-bustānī, 1819-1883)의 『무히뜨 알 무히뜨(Muḥīṭ al-Muḥīṭ)』, 루이스 본 니콜라 알 마으루프(Luyis Bn Niqūla Al-ma‘rūf, 1867-1946)의 『알 문지드(al-Munjid)』, 카이로 아랍어 학술원(Majma‘ al-Lughah al-‘arabiyyah fī al-Qāhirah)에서 발간한 『알 무으잠 알 와시뜨(al-Mu‘jam al-Wasīṭ)』 등이 있다.

다섯 번째, 발음에 따른 단어 배열방식으로서 대표적 사전으로는 앓 셰이크 압둘라 알 알라일리(al-shaikh ‘abd al-lah al-‘alāyī, 1914-)의 『알 마르자으(al-Marja‘)』, 지브란 마쓰 우드(Jibrān Mas‘ūd, 1931-)의 『알 라이드(al-Rā‘id)』 등이 있다.

3. 원저자에 관한 논쟁

『키탃 알 아인』은 최초의 아랍어 사전으로서 많은 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었던 만큼 적지 않은 논쟁에 휩싸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주로 이 사전의 역사와 최초의 출현에 관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키탃 알 아인』은 그 내용 면에서 볼 때 당대의 가장 위대한 언어학자였던 알 칼릴 이븐 아흐마드가 썼다고 여기기엔 너무나 미흡한, 언어학적 오류들이 발견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키탃 알 아

인』의 진정한 저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논쟁들이 많이 대두되어왔으며, 이 문제는 고대와 현대를 통틀어 많은 언어학자들의 주된 관심사였다. 『키탃 알 아인』의 원저자에 대한 논란은 다음과 같다(Ibrāhīm Muḥammad Najā 1990, 20-29).

- ① 아부 하티م 알-사주스 타니('Abū Hātim al-Sajustānī, ?-862)는 알 칼릴이 『키탃 알 아인』을 쓰지 않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 사전이 알 칼릴의 것이라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알 칼릴의 제자이며 바스라 학파인 학자들이 자신들의 책에서 그에 대해 언급한 바가 없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다.
- ② 알 아즈하리는 알 칼릴이 단지 이 사전의 편찬을 제안하였고, 그 내용들은 알 칼릴의 제자였던 알 라이스 이븐 나씨르 이븐 싸얀(al-Layth Ibn Naṣīr Ibn Sayyān, ?-796)이 써서 스승의 이름으로 기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③ 아부 앓 따입 알 루가위('Abū al-ṭayyib al-Lughawī, ?-962)와 아부 바크르 알 주바이다, 유수프 알 이쉬(Yūsuf al-īsh, ? - ?) 등은 알 칼릴이 사전의 일부 만을 저술하였고, 나머지는 그의 제자 알 라이스가 완성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 근거로는 『키탃 알 아인』의 내용에서 아부 우바이다, 이븐 알 아으라비(Ibn al-'a'rabī, 767-845)등의 후대학자들이 언급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사전 내의 문법에 관한 설명에서 자음의 조음점이나 그 선행, 후행을 언급한 것은 쿠파 학파의 사상이지 알 칼릴이 대표하였던 바스라 학파의 사상과는 다르다는 점, 또한 위대한 언어학자인 알 칼릴이 기록했다고는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오류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증거로 들고 있다.
- ④ 이븐 알 무으타즈(Ibn al-Mu'tazz, 861-909)는 알 칼릴이 쓴 『키탃 알 아인』의 원본이 있기는 하였지만 소실되었고, 그 후 알 라이스를 비롯한 언어학자들이 재 편찬하였다

고 주장하였다.

위의 의견들과는 대조적으로 이븐 두라이드와 이븐 파리스는 『키탃 알 아인』이 알 칼릴 이븐 아흐마드의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였는데, 현대 아랍 언어학자들의 의견 역시 알 칼릴이 이 사전의 원저자임이 분명하다는 것으로서, 위에 언급된 학자들의 의견에 반론을 제시하고 있다.¹⁰⁾

- ① 『키탃 알 아인』이 알 칼릴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주장에는 확실한 문서상의 증거가 없다.
- ② 알 칼릴의 제자들이 그의 사전에 대해 알고 있지 않았다는 점과 그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것만으로 그가 『키탃 알 아인』을 쓰지 않았다는 사실에 동조할 수 없다.
- ③ 이 책의 내용 중 일부분이 쿠파 학파의 경향을 띠고 있다는 것 역시 알 칼릴이 『키탃 알 아인』의 원작자라는 사실을 반박할 수 없다. 아마 이것은 쿠파 학파와 바스라 학파간의 차이점이 확고해진 후에 쿠파 학파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진실을 왜곡하고자 만들어진 얘기일 것이라는 의견이 일반적이다.
- ④ 『키탃 알 아인』에서 나타나는 후대 학자들의 이름은 이 사전의 저자가 알 칼릴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려는 사람들이 중도에 삽입한 것이거나, 아니면 사전의 기록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삽입시킨 것이라는 의견이다.
- ⑤ 『키탃 알 아인』에서 발견되는 오기들과 잘못된 사항들을 비롯하여 알 칼릴의 정밀한 체계와 일치되지 않는 내용들은 모두 기록 단계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다.
- ⑥ 원래의 책이 소실되고 후배들에 의하여 재 편찬 되었다는 얘기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이라기보다는 흥미를 위해 꾸며

10) 칼릴을 지지하는 현대 학자들은 라밀 야으프, 후세인 나싸르, 이브라힘 무함마드 나자, 아흐마드 따히르 후세인, 아흐마드 무함마드 아부 알 파라즈 .

진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키타브 알 아인』의 원저자에 대한 논란은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으나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조음점에 의거한 독특한 알파벳 순서와 순환 식 단어 배열 방법 등을 창안해 낸 알 칼릴 이븐 아흐마드가 원저자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V. 결론

지금까지 아랍어 사전의 기원에 대해 아랍어 사전학이 발전하게 된 배경과 최초의 아랍어 사전으로 간주되는 『키타브 알 아인』에 대해 저자와 편찬 방식의 특징, 그 영향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랍어 사전학이 발전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이슬람 제국의 확장으로 인한 아랍인과 비 아랍인들의 혼합으로 인해 야기된 제반 언어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아랍어로 이루어진 꾸란 원문의 고결성과 정확하고 순수한 아랍어 발음을 고수하는 것이 종교적 의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은 순수한 아랍어의 보존, 유지를 위한 언어학적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최초의 아랍어 사전인 『키타브 알 아인』이 등장하기에 이른다.

『키타브 알 아인』은 조음점에 의거한 알파벳 순서와 순환 식 단어 배열 방식을 최초로 선보인 사전이며 어휘와 용례의 설명에서 문학적 유산들을 보존해 주었다는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사전의 용도 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아랍어사전 중에서 『키타브 알 아인』만한 영향력을 가진 사전은 없다. 비록 혼란스럽고 일관되지 못한 정돈방식으로 인해 많은 비평들에 마주치긴 하였지

만, 키탕 알 아인』이 아랍 언어학자들로 하여금 아랍어의 기록과 성문화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었음은 물론, 후대 학자들에게 보다 완전한 사전의 개념을 보급시킨 동시에 본격적인 아랍어 사전학의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 아랍어 사전학, 사전, 키탕 알 아인, 알 칼릴 이븐 아흐마드,
조음점

고 문 헌

남기심 외(1989), 『사전편찬학연구』, 제1집, 서울, 한신문화사.
이병근(2000), 『한국어 사전의 역사와 방향』, 서울, 태학사
정지영(1988), 『사전편찬과 문법정보의 필요성』, 서울대 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Abd al-Sāmi Muḥammad 'Aḥmad(1994), *Al-ma ājim al-'arabiyyah*, Cairo, Dār al-fikr al-'arabi.

A. G. Chejne(1967), *The Arabic language its role in history*, Minneapolis.

'Aḥmad Tāhir Ḥusayn(1987), *Min naẓariyāt al-iktimāl al-lughawī 'inda al-'arab*, Cairo, Dār miṣr lit-tibā'ah.

Dār al-Mashriq(1996), *Al-Munjid fī al-lughah wa al-'a' lām*, Lebanon.

Fontenelle, Thierry edt.(2006), *Practical Lexicography*,

Oxford University Press.

- G. Bergstrasser(1982), *Al-taṭawwur al-naḥwī lil-lughah al-‘arabiyyah*, Cairo, Maktabat al-khānjī.
- Ḥusayn Naṣar(1998), *Al-mu‘jam al-‘arabī nasha‘atuh wa taṭawwuruh*, Cairo, Dār miṣr lit-tibā‘ah.
- ‘Ibrāhīm Anīs(1985), *Min ‘asrār al-lughah*, Cairo, Maktabat al-‘anjar al-miṣriyah.
- ‘Ibrāhīm Muḥammad Najā(1990), *Al-ma‘ājim al-lughawiyyah*, Cairo, al-Hay‘ah al-miṣriyah al-‘āmah lil-kitāb.
- J. A. Haywood(1965), *Arabic lexicography*, 2nd. Ed, Leiden, Netherlands.
- Jibrān Mas‘ūd(1998), *Al-rā‘id 1.2*, Beirut, Dār al-‘ilm lil-mallāyīn.
- Khalīl al-Jurr(1993), *Lārūs*, Paris, Maktabat Lārūs.
- Muḥammad Aḥmad ‘Abū al-Faraj(1986), *Al-ma‘ājim al-Lughawiyyah fī ḍaw’ dirāsāt ‘ilm al-lughah al-ḥadīth*, Cairo, Dār nahḍah al-‘arabiyyah.
- Muḥammad ‘Abd Al-ḥāfīz al-‘Aryān(1984), *Al-ma‘ājim al-‘arabiyyah al-mujannasah*, Cairo, Dār al-muslim.
- Rāmīl Ya‘qūb(1992), *Fiqh al-lughah al-‘arabiyyah wa kh aṣā‘iṣuha*, Beirut, Dār al-‘ilm lil-mallāyīn.
- Shawqī Ḍayf(1989), *Al-madāris al-naḥwiyyah*, Cairo, Dār al-ma‘ārif.
- Versteegh, K.(1997), *The Arabic Language*,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 Versteegh, K.(1998), *Landmarks in linguistic thought III - The Arabic linguistic tradition*, Taylor & Francis Ltd.



윤은경

소 속 한국외국어대학교 아랍어과

이메일 nabilayun@hanmail.net

전화번호 010-9121-2452

논문접수일 2010년 x월 x일
심사완료일 2010년 x월 x일
게재확정일 2010년 x월 x일